

낸시 피어시 지음 | 홍병룡 옮김 | 복있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에게 완전한 진리를

이재영



저자

저자인 낸시 피어시는 독일의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스위스 라브리공동체(L'Abri Fellowship)에서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를 만났고 '완전한 진리'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찾은 '완전한 진리'란 '성경의 진리'였다. 그녀는 성경이야말로 종교 뿐 아니라 인생과 온 우주의 궁극적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적실한 진리임을 발견한 이후 '쉐퍼적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낸시는 아이오와주립대학교와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산실인 기독교학문연구소(ICS)에서 공부했으며, 카버넌트신학교에서 성경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경·과학 뉴스레터', '크리스챤리티 투데이'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프란시스 쉐퍼 연구원으로 세계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세계관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How Now Shall We Live? 찰스 콜슨 공저)와 <The Right Question> 등이 있는데, 1994년에 출판한 <과학의 영혼: 기독교 신앙과 자연철학(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및 문화 비평가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세계관의 중요성

저자는 프란시스 쉐퍼가 1981년 4월 노트르담대학에서 강연한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기독교는 일련의 복수 형태의 진리들(truths)이 아니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진리(Truth)다.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 실재(total reality)에 관한 진리다. 이처럼 성경적 기독교는 총체적 실재와 관련된 진리이며, 그 총체적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이자 가치관을 결정하는 창(window)

혹은 안경(glasses)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관의 뜻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 대한 관점이자 성격에 입각해서 모든 실재를 보는 관점을 일컫는다. 세계관은 세계를 잘 항해하는 법을 일러주는 마음의 지도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우리의 내면에 새기는 것이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뜻하는데, 세계관이란 용어의 본래 용법은 상대주의(relativism)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세계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창이나 안경의 색깔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세상이라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세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 삶의 양식과 태도, 나아가 역사관, 인생관 등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즉 세상의 근원, 역사의 방향과 목적, 죄와 악의 원인에 관한 내용과 그 해결책 등이 모두 세계관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종교가 다루는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문화의 뿌리이며 종교적 성격을 띄게 마련이다. 따라서 세계관의 대립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자 문화 전쟁이 된다.

세계관 전쟁

몇 년 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청소년 중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된 것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접하는 수많은 폭력물과 포르노 영상, 분노와 증오, 권위에 대한 저항과 이기심을 배양하는 음악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생명 존중, 준법, 노동의 가치, 자기희생, 공동선에 헌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국가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통계이며, 미국 사회 내 기독교적 가치관의 혼돈과 변질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사회·문화 속 반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부흥

과 확산까지 1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신흥 기독교 국가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세계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무속신앙,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고, 최근에는 반기독교운동 또는 반기독교주의라는 시민 사회운동을 통해 반기독교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등 다양한 계층이 활동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운동은 어떤 세계관, 철학,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나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기독교운동 혹은 반기독교주의는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의 대립 문제가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인 우리는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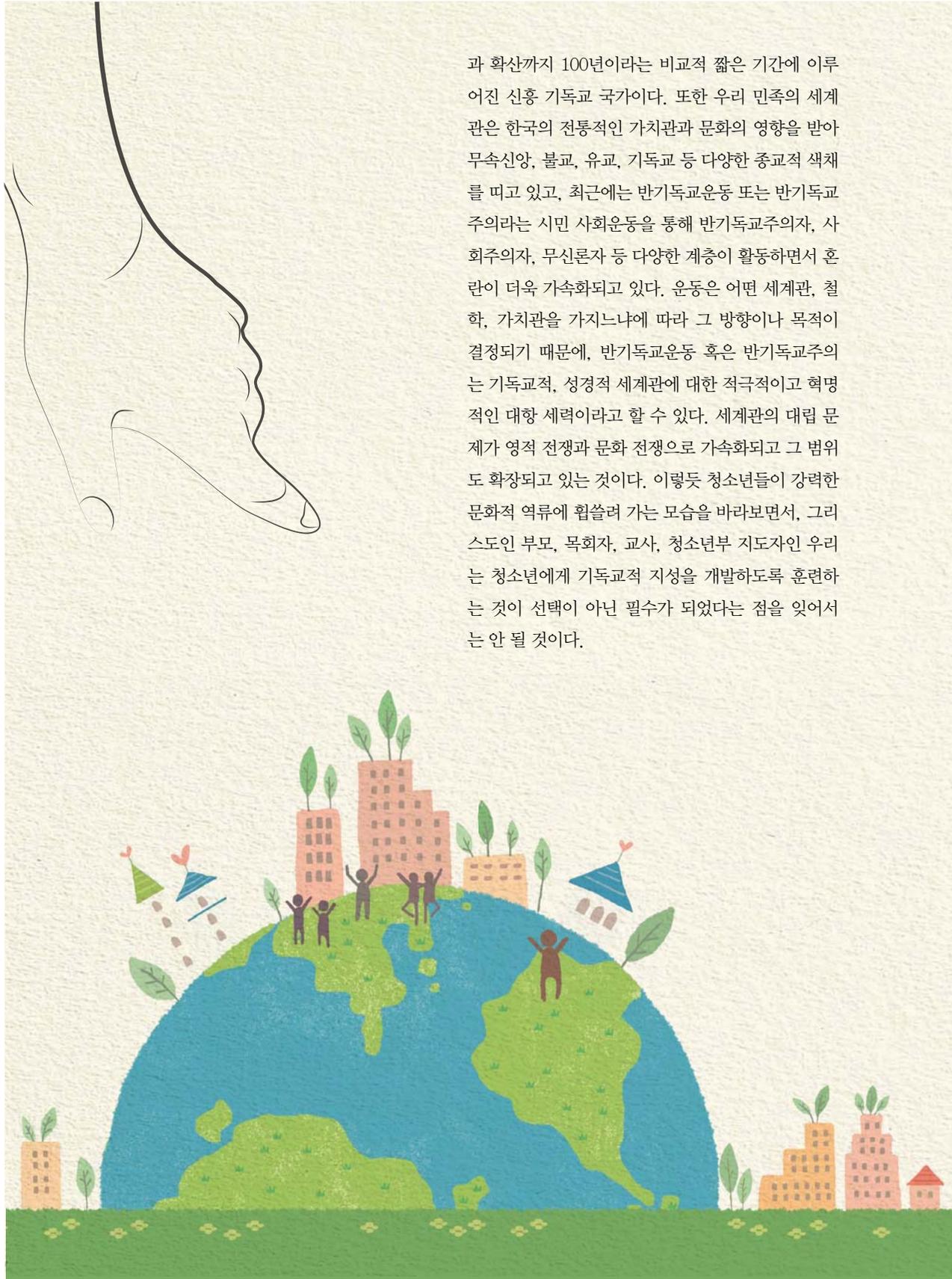
세계관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 《완전한 진리》는 비기독교적(또한 반기독교적) 비진리가 만연된 세상과의 지루하고도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머리말에 본서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책은 그런 갈망,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할 전반적인 틀을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증진시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의 믿음을 ‘종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성(聖, sacred)/속(俗, secular)의 분리 현상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실제적이고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포스티모던 세계에서 접하는 온갖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미궁을 뚫고 나갈 세계관의 적용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계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를 그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고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슴”과 “머리” 사이의 뚜렷한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삶을 예배 및 개인의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과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괄하는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배격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이분법(dichotomy)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1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크게 4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책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기독교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틀인 창조·타락·구속을 통해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이분법적 사고방식, 분열된 지성 등을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사실/가치, 공/사, 성/속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 저자는 이를 ‘분리된 지성’이라고 말한다. 이를 테면, 자신의 신앙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자신의 전문 영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는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든지, 교회 일은 가치 있게 여기지만 일상적인 일은 하찮게 여기는 것 등이다. 저자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고자 종교적 신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성을 절대시, 이상화함으로써 종교로부터 독립된 진리의 창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식 합리주의는 기독교 내에 비기독교적인 사고체계가 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경적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진리의 이분화, 파편화를 주장하는 비기독교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지배당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모든 학문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받아들일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를 해석하는 일련의 사상은 용어와 개념들로 채워진 철학적 도구상자와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의 분석 도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구(잘못된 세계관으로 형성된 세상의 철학적 도구)를 빌려 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저자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이원론에 지배당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분석, 진단, 비판하여 그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 정립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일, 사업, 정치 등의 영역에 적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는지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헬라 사상과 만나면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헬라 사상(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총의 분리)은 물질과 영혼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설정하고 물질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때로 완전히 악하다고 여겼다. 구원은 물질 세계에서 영혼을 해방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금욕적 훈련에 근거하여 이해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를 쉐퍼가 비판한 실재에 대한 '이층 구조(two-story)'라고 설명한다.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은 이러한 이원론의 영향을 이어받아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 계몽주의, 무신론, 불가지론, 현대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진화론, 종교적·윤리적 상대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을 분석, 진단, 비판하고 있다.

2부 최초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다윈주의가 과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얼마나 터무니없는 데까지 나아갔는지, 심지어 미국의 사회적, 법적 제도를 변형시켜 얼마나 파괴적

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밝혀내고 있다. 저자는 다윈주의자들이 진화론, 특히 돌연변이설, 발생반복설 등이 허구로 판명되었음에도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자연주의 철학과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옹호하고 나아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세계관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연주의 철학은 신의 개입이 불가능한 '닫힌 체계'로, 이러한 자연주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적 지성, 상식에 기초한 지성은 '꼭 막힌 지성'으로 전락했으며 급기야 자연주의 철학, 진화론은 종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윈주의는 종교가 되어 자연과학, 생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학문은 물론 인간의 윤리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진화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방법을, 법학에서는 법의 진리성보다 사회적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판결을 주장하는 법적 실용주의를, 교육학에서는 기독교 신앙 대신 자연철학과 실용주의에 근거한 구성주의 교육을, 철학에서는 진리를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층 구조로 파악하는 신실용주의를 채택·적용하면서 결국 자가당착이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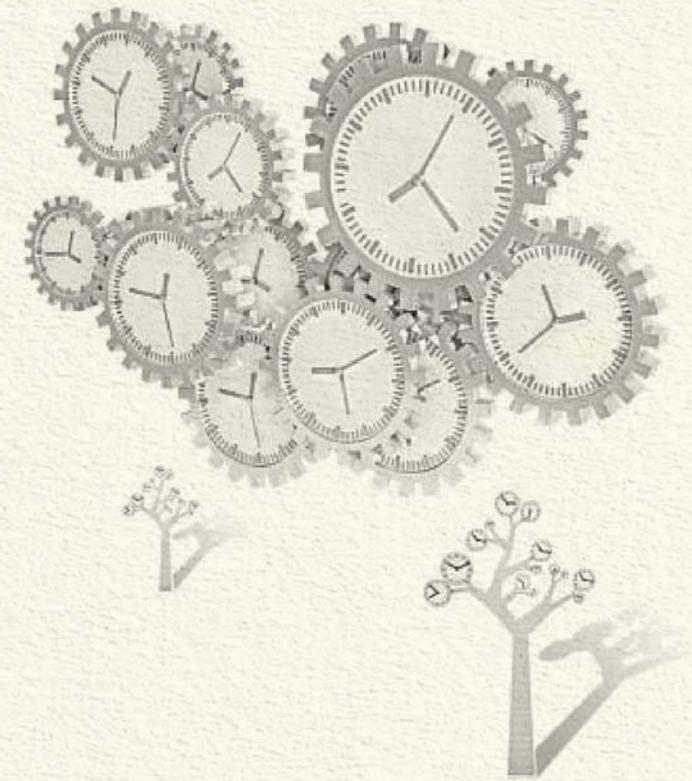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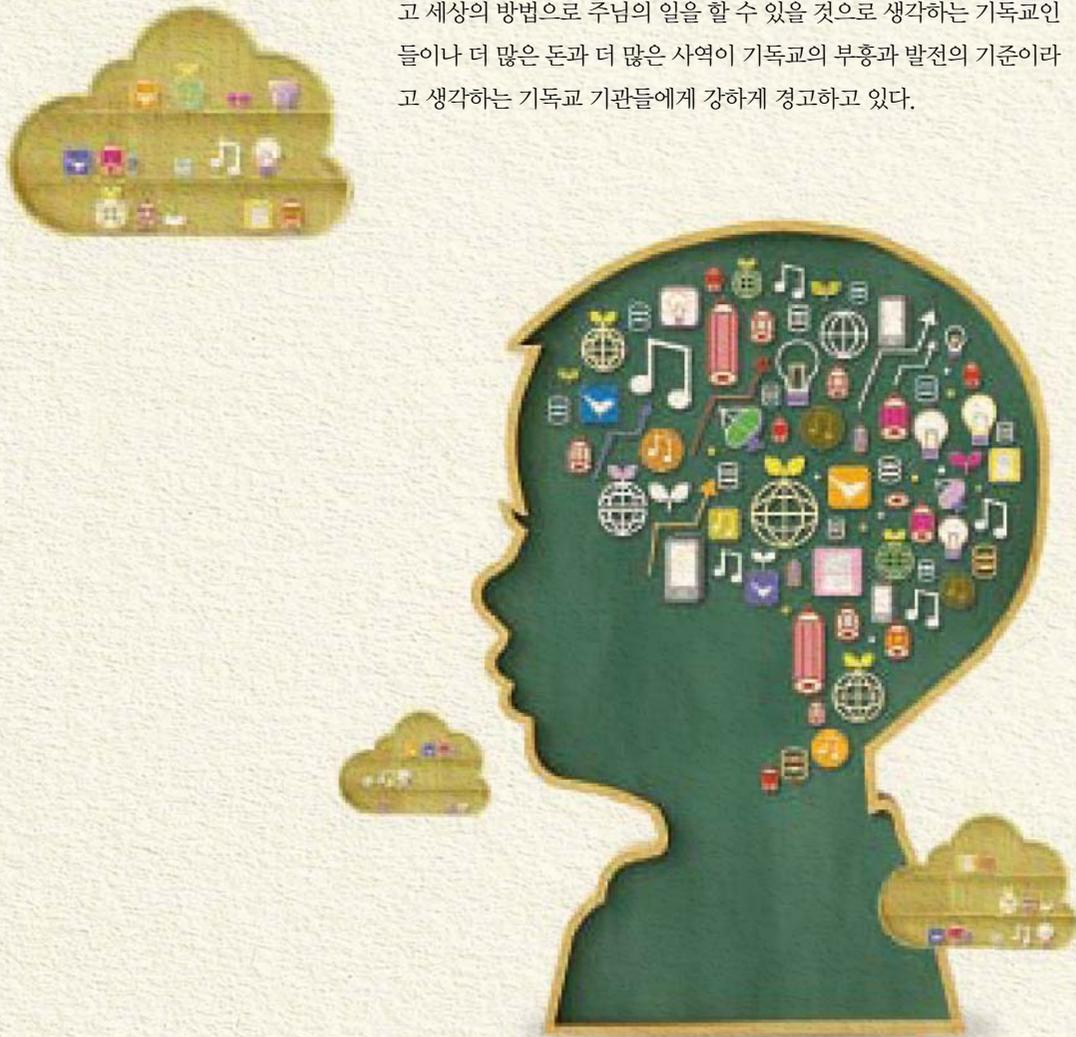
3부 복음주의가 어떻게 지성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주의자들은 왜 강력한 세계관의 전통을 갖지 못했을까? 왜 성/속의 이분법이 그토록 만연하게 되었을까?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와 유산을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적 사고를 방해하는 자멸적인 걸림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극복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복음주의가 교회 내부의 갱신운동으로 지적 전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1, 2차 대각성운동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과 교리, 신학적 진리를 이어가기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윤리적 측면에 근거하여 개인적 체험과 구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고백의 내용이나 학문적 기독교 진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교회가, 대중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복음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심에 초점을 둔 구원론 그리고 통속적인 언어와 민요 사용은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서게 한다는 전도 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육을 영적인 죽음과 동일시했다. 즉, 복음주의가 기독교를 지적 차원이 없는 감정의 종교로만 이해함으로써 결국 종교를 지성과 감성이라는 이

층적 진리로 구분하는 세속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이라 자부하는 복음주의는 토마스 리드(Thomas Reid)가 체계화시킨 스코틀랜드의 상식 철학, 즉 상식적 실재론(common sense re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이 철학은 데이비드 흄의 회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는데, 그 핵심은 부인할 수 없거나 자명한 경험적 진리들을 확고한 토대로 삼아 지식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세기의 사상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선, 창조 등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신학적 교리들을 아무런 반발 없이 자명한 진리, 상식적 실재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복음주의가 귀납법을 적용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주창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성경 해석에 반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층 구조'의 세계관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설립된 대학의 신학은 타 학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별개의 학문이 되었고, 종교는 과외활동 혹은 주관적 경험과 연관된 사적 영역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4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 실제적, 개인적 적용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굴복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는 것만이 마음과 지성의 성화에 이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층 구조’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 사역이 오늘날에도 사업, 마케팅, 경영 등의 분야를 본질상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그 분야의 최신 기법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적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저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고 외치면서 세상적인 무기를 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역이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기관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완전한 진리》의 일독을 권하면서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는 평신도가 읽기에 살짝 부담이 되는 분량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책이 다루는 주제의 무게를 감안하여 일상적인 이야기로 각부를 시작하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긴 하지만, 쉽게 손에 잡을 수 없는 무게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만큼 귀하고 귀한 책이다. 배교(기독교세계관을 포기함)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완전한 진리》가 다루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는 개인적 영성, 체험적 신앙, 감정으로 쉽게 동의하는 책보다 《완전한 진리》같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다룬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쉼과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 세계를 총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신학)를 상충부로 밀어 버리고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로 접근하는 세상 학문의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담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성경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영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조직신학 석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공항밸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